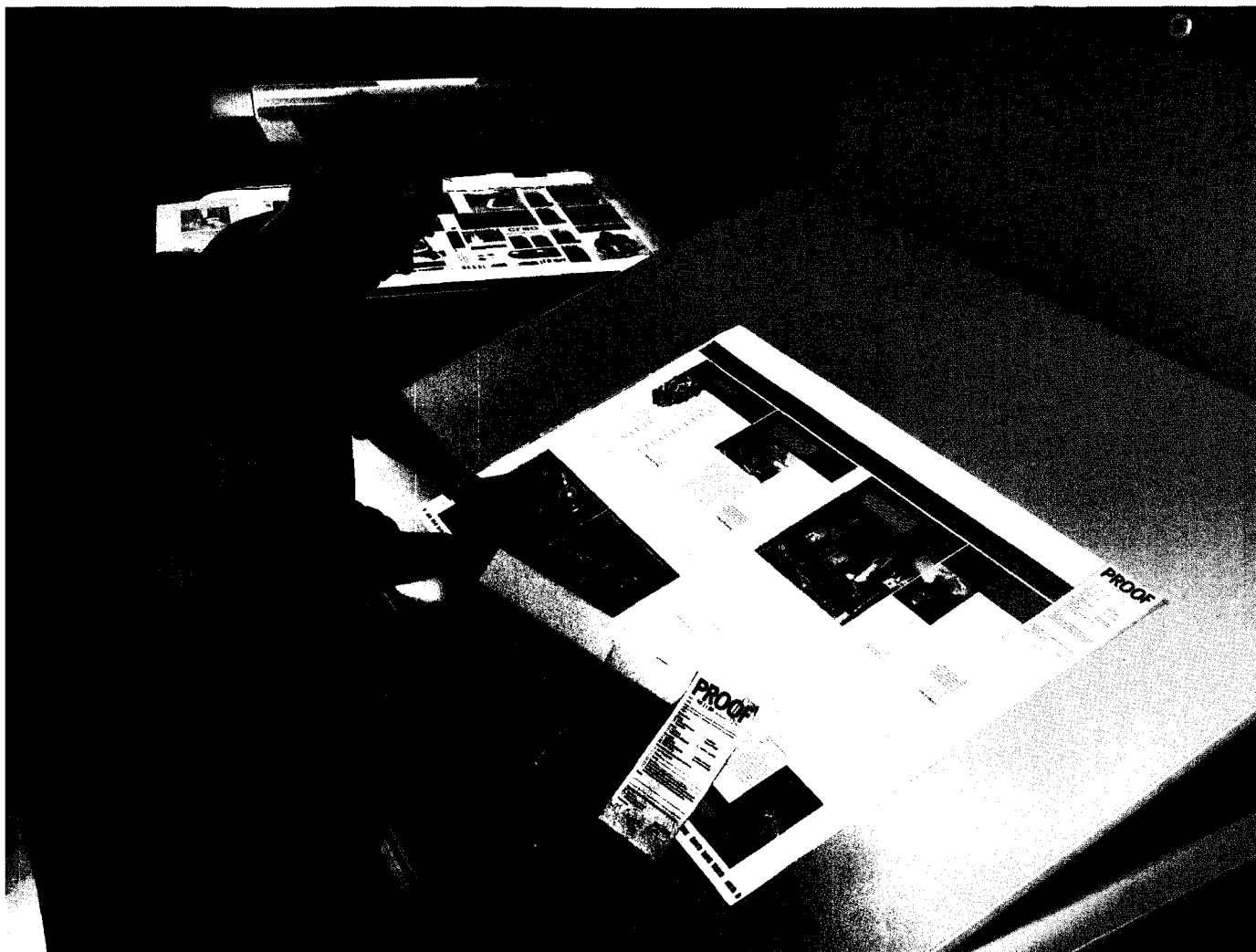


원재료 구입가격 대폭 상승하고 제품가격은 짙끔 올라 ... 인쇄사 경영 악화

2011년 상반기 인쇄업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상황은 인쇄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제조업 평균보다 인쇄업계가 더 어려운 상반기를 보냈다. 인쇄업계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과 달러화 약세, 내수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인쇄용지가격상승과 함께 올해에는 인쇄용 잉크 및 부재료의 가격인상으로 어려운 상반기를 보냈다. 그러나 제품판매 가격은 지난 2010년보다 조금은 높아졌지만 제조업평균에 비해서는 낮아 인쇄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편집자주>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업황_ 80~90선 등락후 69선으로 주저앉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011년도 BSI통계에 따르면 1월 인쇄업은 80으로 저조했으나 2월, 3월 2개월 연속으로 조금씩 상승곡선을 그려나갔다. 하지만 다시 4월부터 5월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다 6월 69를 기록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치를 보면 1월 80, 2월 85, 3월 90, 4월 85, 5월 80 등 80~90선을 등락했으나 6월에는 69를 기록해 대폭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에는 84~95까지 오르내렸던 것에 비하면 고른 수치였으나 3월 이후로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쉬웠으며, 6월에는 상반기 중 최저선인 69로 주저앉은 것이 눈이 띄었다. 제조업은 1월 90, 2월 88, 3월 93, 4월 98, 5월 94, 6월 91을 나타내 제조업도 지난 2010년 상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103으로 100을 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이를 한번도 돌파하지 못했다.

매출실적_ 수출도 6월이 최저 기록

매출실적은 업황과는 달리 등락폭이 조금 있었다. 1월 100, 2월 100, 3월 90, 4월 112, 5월 91, 6월 83을 기록해 83부터 112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다만 업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업황은 3월에 90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매출실적은 3월이 90으로 낮았다. 6월에는 더욱 심각해져 83으로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제조업은 1월 104를 시작으로 2월 103, 3월 106, 4월 112로 점점 상승곡선을 그려가다 5월 107, 6월 106으로 살짝 내려왔다.

수출실적_ 4 ~ 5월 제조업평균보다 높아

수출실적은 지난 2010년보다 대체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1월 91, 2월 82로 최저점을 찍다가 3월 92, 4월 113, 5월 106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6월 다시 94로 하락했다. 수출실적에서 눈여겨봐야할 것은 제조업과의 관계다. 제조업은 1월 104, 2월 104, 3월 105, 4월 110, 5월 103, 6월 104로 전반적으로 100이 넘는 수치를 보였으나 4월 5월의 경우 인쇄업 대 제조업은 4월 113/110, 5월 106/103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생산설비 실적_ 인쇄업이 제조업평균보다 대체로 높아

생산설비 실적은 지난 2010년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1월 100, 2월 105, 3월 100, 4월 103, 5월 103, 6월 106이었고, 제조업은 1월 101, 2월 101, 3월 101, 4월 98, 5월 101, 6월 100으로 인쇄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생산설비실적을 갖고 있었다.

원재료 구입가격 실적_ 5월 169로 2000년 비해 원재료가격 폭등

올해 상반기 결산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원재료구입 가격 실적이다. 상반기는 잉크, 종이 등 원재료 구입가격이 폭등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원재료 구입가격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인쇄업의 원재료구입가격 실적은 지난 2010년보다 높은 수치가 지속됐는데, 2000년에 비해 1.5배나 넘는 가격변동이 있었다. 1월에는 135, 2월 140, 3월 167, 4월 165, 5월 169, 6월 137을 나타내 1월부터 5월까지 끊임없이 원재료 구입가격이 높아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제조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조업에 비해 인쇄업의 원재료구입가격실적은 월등히 높았다. 제조업은 1월에는 136으로 인쇄업과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2월 135, 3월 140, 4월 139, 5월 129, 6월 124를 나타내 4월을 기점으로 원재료구입가격 실적이 한풀 꺾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판매가격 실적_ 5 ~ 6월 인쇄물가격 2000년보다 낮아

제품판매가격 실적 역시 원재료구입 가격실적과 마찬가지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인쇄업의 제품판매 가격실적은 지난 2010년보다는 조금은 높아졌지만 평균 제조업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다.

1월은 105, 2월 110, 3월 110, 4월 103, 5월 97, 6월 91을 나타냈다. 특히 5월의 경우 원재료구입 가격실적은 169로 최고 수치를 보였지만 제품판매 가격실적은 오히려 최저인 97을 나타내 인쇄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6월 역시 원재료 구입가격은 137을 나타냈으나 제품가격은 91로 최저기록을 갱신했다.

제조업은 지난 2010년 상반기에 비해 조금은 올랐으나 가격변동이 크지 않았다. 1월 105, 2월 106, 3월 108, 4월 107, 5월 106, 6월 101을 나타냈다.

자금사정 실적_ 원재료 가격상승과 맞물려 하락세

원재료구입 가격실적의 증가와 제품판매가격실적의 하락은 자금사정 실적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1월 90, 2월 85, 3월 90, 4월 79, 5월 74으로 최저로 하락하다 6월 90으로 다시 상승했다.

제조업은 1월 87, 2월 87, 3월 90, 4월 91, 5월 90, 6월 89를 나타내 큰 등락폭은 없으나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인쇄출판업과 중소제조업의 BSI (2010년/2011년, 2000=100)

(출처: 한국은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업황	인쇄	85 / 80	86 / 85	84 / 90	95 / 85	95 / 80	100 / 69
	제조업	93 / 90	94 / 88	99 / 93	103 / 98	103 / 94	105 / 91
매출실적	인쇄	105 / 100	95 / 100	95 / 90	95 / 112	100 / 91	85 / 83
	제조업	108 / 104	109 / 103	114 / 106	119 / 112	117 / 107	117 / 106
수출실적	인쇄	100 / 91	91 / 82	100 / 92	117 / 113	91 / 106	91 / 94
	제조업	106 / 104	107 / 104	109 / 105	113 / 110	113 / 103	114 / 104
내수판매실적	인쇄	105 / 100	95 / 105	95 / 95	95 / 106	105 / 83	90 / 80
	제조업	105 / 101	107 / 100	110 / 103	113 / 107	114 / 105	112 / 104
생산실적	인쇄	100 / 100	100 / 90	100 / 100	105 / 112	95 / 97	90 / 94
	제조업	109 / 104	111 / 103	114 / 107	117 / 109	116 / 106	115 / 104
신규수주실적	인쇄	105 / 105	95 / 95	100 / 110	100 / 106	95 / 97	90 / 80
	제조업	102 / 102	105 / 100	110 / 102	112 / 108	113 / 102	112 / 100
제품재고실적	인쇄	105 / 110	95 / 100	100 / 95	105 / 100	105 / 106	100 / 109
	제조업	105 / 103	101 / 102	101 / 101	103 / 101	97 / 105	101 / 104
가동률실적	인쇄	100 / 100	105 / 90	100 / 110	100 / 106	100 / 91	90 / 80
	제조업	108 / 104	112 / 103	115 / 105	118 / 109	117 / 103	115 / 103
생산설비실적	인쇄	100 / 100	105 / 105	105 / 100	110 / 103	110 / 103	100 / 106
	제조업	101 / 101	101 / 101	101 / 101	100 / 98	99 / 101	98 / 100
설비투자실적	인쇄	100 / 115	100 / 100	105 / 95	110 / 91	105 / 103	100 / 97
	제조업	101 / 103	101 / 102	103 / 102	103 / 104	107 / 102	105 / 102
채산성실적	인쇄	95 / 90	95 / 75	89 / 90	85 / 79	95 / 74	110 / 80
	제조업	91 / 85	90 / 80	93 / 84	93 / 86	91 / 86	91 / 85
원재료 구입가격실적	인쇄	105 / 135	129 / 140	121 / 167	155 / 165	130 / 169	140 / 137
	제조업	114 / 136	121 / 135	122 / 140	133 / 139	133 / 129	126 / 124
제품 판매가격실적	인쇄	100 / 105	105 / 110	100 / 110	105 / 103	90 / 97	120 / 91
	제조업	96 / 105	98 / 106	104 / 108	105 / 107	105 / 106	101 / 101
자금사정실적	인쇄	85 / 90	90 / 85	100 / 90	85 / 79	95 / 74	105 / 90
	제조업	92 / 87	89 / 87	92 / 90	95 / 91	93 / 90	97 / 94
인력사정실적	인쇄	75 / 70	90 / 70	84 / 67	80 / 59	75 / 63	70 / 83
	제조업	93 / 93	89 / 93	89 / 91	88 / 90	85 / 88	87 /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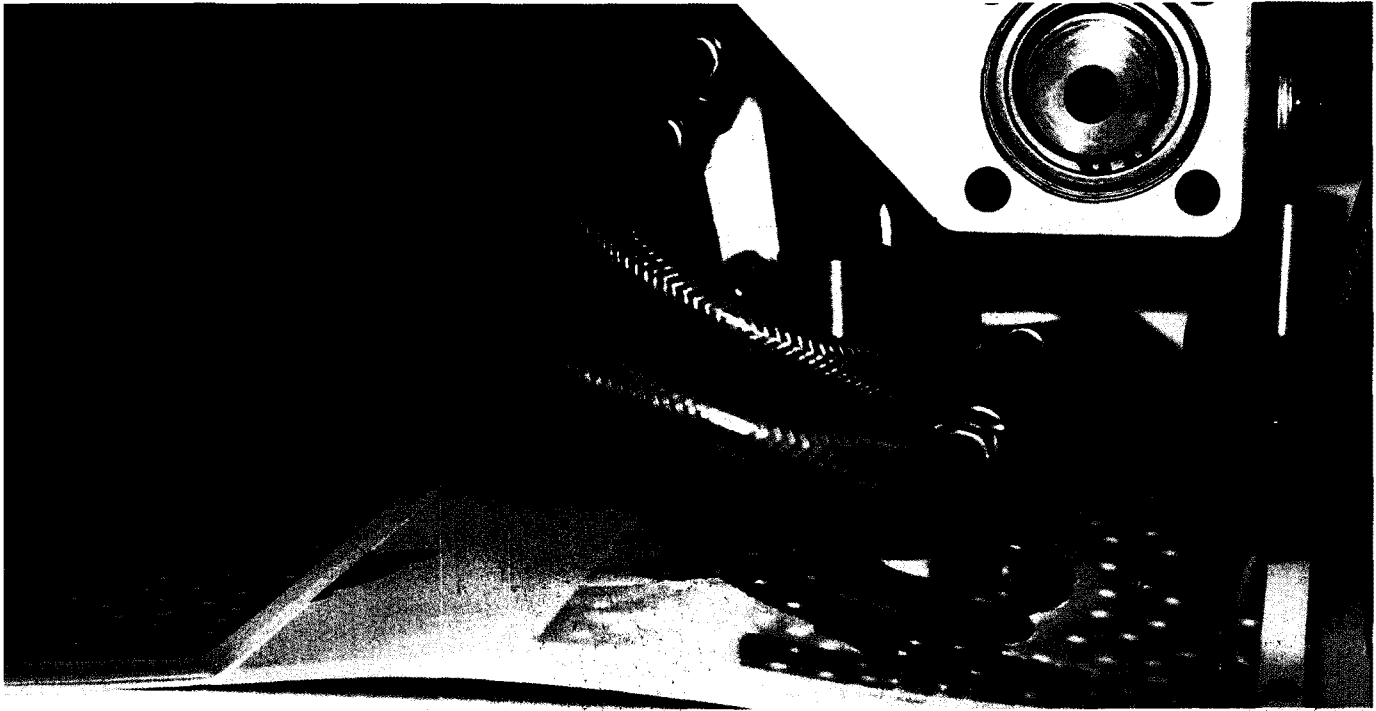


인쇄물수출 40.36%로 큰폭 감소 ... 4월 인쇄물 최대 수출

관세청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인쇄물수출 실적은 1억4035만3천 달러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 2억3535만3천 달러에 비해 40.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특이한 점은 '우표, 수입인지'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하고, '기타인쇄물'이 대폭 하락한 것이다.

인쇄물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이 가장 많은 4812만6천 달러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우표, 수입인지'가 3623만2천 달러를 기록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표, 수입인지'의 경우 지난 2010년 상반기는 3만4천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0만6464%나 증가한 3623만2천 달러로 인쇄물수출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기타 인쇄물'이 17784만5천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타 인쇄물'은 지난해 1억5640만3천 달러였던 것이 1784만5천 달러로 88.59%나 급감한 수치를 보였다.

'기타 인쇄물'에 이어 '캘린더'가 4위(1627만4천 달러), '전사물'이 5위(1150만7천 달러), '인쇄된 엽서' 6위(347만1천달러), '신문 잡지'가 7위(299만4천 달러), '설계도와 도안'이 8위(282만5천 달러), '아동용 그림책'이 9위(71만8천 달러), '지도, 해도'가 36만 달러로 10위, '악보'가 1천 달러로 11위를 기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의 경우 '우표, 수입인지'가 3620만6천 달러를 수출해 지난 1~3월 평균인쇄물 수출액인 1422만3천 달러보다 270% 상승한 5287만2천 달러를 기록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4월이 상반기 인쇄물 수출액 중 가장 많은 5287만2천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5월에는 인쇄물수출총계가 2296만2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중 캘린더가 563만9천 달러를 기록해 5월 인쇄물수출을 주도했다.



인쇄물수입 2.0% 소폭 증가

인쇄물수입 실적은 1억7052만4천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1억6717만1천 달러와 비슷해 2.0%상승에 그쳤다. 인쇄물 수입에서 50%이상 증가폭을 보인 것은 '설계도와 도안' (+305.17%), '캘린더' (+73.91%), '기타인쇄물' (+51.09%)이었고, 반면 '우표 수입인지'는 57.76% 하락했다.

인쇄물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이 가장 많은 9295만4천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기타인쇄물이 3110만2천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인쇄된 엽서'가 3위(230만7천 달러), '아동용 그림책'이 4위(1149만1천 달러), '신문 잡지'가 5위(963만1천 달러), '설계도와 도안'이 6위(305만1천 달러), '지도, 해도'가 7위(268만3천 달러), '우표, 수입인지'가 8위(243만5천 달러), '인쇄된 엽서'가 9위(230만7천 달러), '약보'가 10위(61만2천 달러), '캘린더'가 11위(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인쇄물 수출입 실적

〈출처: 관세청, 단위:천달러〉

구분	인쇄물수출		증감	인쇄물수입		증감
	2010	2011		2010	2011	
인쇄서적, 소책자	48,791	48,126	-1.36	95,297	92,954	-2.45
신문잡지	3,641	2,994	-17.76	8,800	9,631	9.44
아동용 그림책	1,148	718	-37.45	9,993	11,491	14.99
약보	15	1	-93.33	734	612	-16.62
지도 해도	178	360	102.24	2,461	2,683	9.02
설계도와 도안	2,082	2,825	35.68	753	3,051	305.17
우표, 수입인지	34	36,232	106,464	5,765	2,435	-57.76
전사물	3,649	11,507	215.34	20,685	14,058	-32.03
인쇄된 엽서	4,505	3,471	-22.95	1,984	2,307	16.28
캘린더	14,905	16,274	11.19	115	200	73.91
기타인쇄물	156,403	17,845	-88.59	20,584	31,102	51.09
합계	235,351	140,353	-40.36	167,171	170,524	2.00

상반기 인쇄물 수출 실적

〈출처: 관세청, 단위:천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인쇄서적, 소책자	9,149	6,536	8,282	6,693	8,501	8,964	48,126
신문잡지	415	529	619	522	466	443	2,994
아동용의 그림책	96	79	190	110	173	69	718
약보	0	0	0	0	1	0	1
지도 해도	31	25	50	40	164	50	360
설계도와 도안	65	47	70	36	965	1,642	2,825
우표, 수입인지	0	0	0	36,206	14	12	36,232
전사물	1,579	1,740	1,959	1,878	1,999	2,353	11,507
인쇄된 엽서	628	496	787	652	392	516	3,471
캘린더	698	606	1,557	3,027	5,639	4,747	16,274
기타인쇄물	2,138	2,423	1,876	3,708	4,648	3,050	17,845
합계	14,799	12,481	15,390	52,872	22,962	21,846	140,353

상반기 인쇄물 수입 실적

〈출처: 관세청, 단위:천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인쇄서적, 소책자	23,684	15,273	15,326	13,353	14,137	11,182	92,954
신문잡지	1,607	1,416	1,809	1,594	1,639	1,566	9,631
아동용의 그림책	2,045	970	1,523	3,147	1,810	1,996	11,491
약보	84	138	119	101	113	56	612
지도 해도	451	431	551	421	472	357	2,683
설계도와 도안	22	41	607	2,069	45	267	3,051
우표, 수입인지	886	228	202	402	343	374	2,435
전사물	2,111	1,782	2,251	2,888	2,135	2,890	14,058
인쇄된 엽서	360	321	700	397	371	157	2,307
캘린더	135	12	32	11	2	7	200
기타인쇄물	3,143	10,417	5,037	4,018	4,100	4,387	31,102
합계	34,528	31,029	28,157	28,401	25,167	23,239	170,524

인쇄기 수출 늘고 수입은 감소

인쇄기 수출은 2853만2천 달러로 지난해 2318만6천 달러보다 23.05% 상승한 반면, 수입은 5718만3천 달러로 지난해 7041만 달러보다 18.78% 감소했다.

인쇄기자재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가 5356만4천 달러로 지난해 3371만2천 달러보다 58.88% 상승해 1위를 차지했으며, '인쇄기'가 2853만2천 달러로 지난해 2318만6천 달러보다 23.05%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제책 기계'가 409만2천 달러로 지난해 246만 달러보다 66.34% 증가했으며, '활자의 주조용, 식자용 기기 및 부분품'이 131만9천 달러로 4위(-1.49%), '인쇄제판용 롤상 필름 자동 현상기'가 5만1천 달러(-80.07%)로 5위, '인쇄제판용 카메라'가 1만 달러로 6위를 차지했다.

인쇄기자재 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쇄기'가 5718만3천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7041만 달러보다 18.78% 감소했지만 1위를 차지했으며, '인쇄제판용 롤상필름자동현상기'가 361만2천 달러로 지난해 169만2천 달러보다 113.47%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제지용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기계'가 3513만8천 달러로 3위(+21.71%), '활자의 주조용, 식자용기기 및 부분품'이 1090만1천 달러로 4위(+25.44%), '제책기계'가 1011만6천 달러로 5위(+6.68%), '인쇄제판카메라'가 1만3천 달러로 6위(-77.58%)를 기록했다.

상반기 인쇄기자재 수출입 실적

〈출처: 관세청, 단위:천달러〉

구분	인쇄물수출		증감	인쇄물수입		증감
	2010	2011		2010	2011	
제책기계	2,460	4,092	66.34	9,482	10,116	6.68
제지용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기계	33,712	53,564	58.88	28,870	35,138	21.71
활자의 주조용, 식자용기기 및 부분품	1,339	1,319	-1.49	8,690	10,901	25.44
인쇄기	23,186	28,532	23.05	70,410	57,183	-18.78
인쇄제판용카메라	0	10		58	13	-77.58
인쇄제판용롤상필름 자동현상기	256	51	-80.07	1,692	3,612	113.47
합계	60,953	87,568	43.66	119,202	116,963	-1.87

상반기 인쇄기자재 수출 실적

〈출처: 관세청, 단위:천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제책기계	204	1,188	411	341	746	1,203	4,092
제지용필프지	10,207	7,109	7,396	7,911	9,917	11,024	53,564
활자의 주조용	81	294	47	374	224	299	1,319
인쇄기	3,640	5,414	4,147	6,592	6,423	4,849	31,065
인쇄제판카메라	0	1	9	0	0	0	10
제판용롤상필름현상기	1	0	41	10	0	0	51
합계	14,133	14,006	12,051	15,228	17,310	17,375	90,101

상반기 인쇄기자재 수입 실적

〈출처: 관세청, 단위:천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제책기계	2,522	544	2,743	2,474	862	970	10,116
제지용필프지	5,882	2,166	6,752	5,377	9,315	5,647	35,138
활자의 주조용	1,936	1,225	1,701	1,232	1,744	3,062	10,901
인쇄기	10,764	6,711	5,082	12,774	12,203	10,414	57,948
인쇄제판카메라	4	3	3	1	0	1	13
제판용롤상필름현상기	817	996	655	79	63	1,001	3,612
합계	21,925	11,645	16,936	21,937	24,187	21,095	117,728

일본에 인쇄물 수출 큰 폭 상승

올해 상반기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수출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1년 상반기 인쇄물 수출은 일본이 4171만1천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1297만2천 달러보다 221.54%상승했다. 반면 대미국 수출은 4318만7천 달러로 2.5%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중국은 431만 달러로 2.91% 상승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의 수입액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국 수입은 6883만6천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864만8천 달러보다 695.97% 상승했으며, 대일본 수입은 2589만5천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553만2천 달러보다 368.09% 상승했다. 대중국 수입은 2006만8천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302만4천 달러보다 563.62% 상승했다. ↻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동향

〈출처: 관세청, 단위:천달러〉

		수출		증감	수입		증감
		2010	2011		2010	2011	
인쇄서적, 소책자	미국	22,254	22,031	-1.00	5,387	47,883	788.86
	일본	5,621	4,881	-13.16	977	5,759	489.45
	중국	587	642	9.36	1,257	5,648	349.32
신문잡지	미국	1,070	963	-7.40	559	4,575	718.42
	일본	1,932	1,396	-27.74	570	3,026	430.87
	중국	24	67	179.16	5	136	2620
아동용 그림책	미국	496	610	22.98	164	972	492.68
	일본	0	0	0	0	0	0
	중국	114	2	-98.24	1,118	9,039	708.49
악보	미국	8	1	-87.5	65	296	355.38
	일본	1	0	0	1	12	1100
	중국	0	0	0	3	0	0
지도 해도	미국	0	8	0	2	45	2150
	일본	163	232	42.33	51	269	417.30
	중국	1	0	0	54	70	29.62
설계도와 도안	미국	442	15	-96.60	0	80	0
	일본	0	61	0	2	131	6450
	중국	71	191	169.01	0	1	0
우표, 수입인지	미국	0	204	0	1,624	1,259	-22.47
	일본	22	27,727	125,931	0	36	0
	중국	4	0	0	0	5	0
전사물	미국	565	1,005	77.87	6	80	1233.33
	일본	413	813	96.85	3,430	12,787	272.79
	중국	1,235	752	-39.10	34	234	588.23
인쇄된 엽서	미국	1,205	631	-47.63	15	119	693.33
	일본	1,523	1,469	-3.54	1	7	600
	중국	667	424	-36.43	177	1,997	1028.24
캘린더	미국	11,689	13,072	11.83	0	20	0
	일본	41	279	580.48	0	93	0
	중국	6	79	1216.66	0	30	0
기타 인쇄물	미국	4,403	4,647	5.54	826	13,507	1535.23
	일본	3,256	4,853	49.04	500	3,775	655
	중국	1,479	2,153	45.57	376	2,908	673.40
합계	미국	42,132	43,187	2.50	8,648	68,836	695.97
	일본	12,972	41,711	221.54	5,532	25,895	368.09
	중국	4,188	4,310	2.91	3,024	20,068	563.62